

여성과 남성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의 비교 및 정책제안

박 경 숙*

IMF이후 여성실업이 남성실업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임금 등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여성들은 실업 후에도 남성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 특히 실업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실업남성가구주와 다르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생활고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실망실업자와 실업자인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실업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활용실태를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성실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기능주의, 인적자본이론과 여권주의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여성과 남성(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 전 경제활동, 실업 후 경제적 생활실태, 실업 후 가족생활 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활용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8년 전국실업실태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83명의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1,528명의 남성(실망)실업가구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 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낮았고, 그 때문에 실업 후에도 더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같은 생활안정대책을 남성보다 더 많이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생활보호수준보다 더 낮은 생활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생활안정대책확대, 실업대책에 대한 홍보, 창업훈련 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IMF 이후 1998년 1월 4.5%이었던 실업율이 1998년 12월에 7.9%로 상승하였다. 이 결과 1998년 12월 실업자수는 166만5천명으로 산업화이후 최고로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1999년에도 대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상황은 당분간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IMF 이후 남성의 실업율이 여성의 실업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실업은 남성의 문제인 것으로 부각되고 여성실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남성에 대한 것보다 낮다. 그러나 여성실업의 증가율도 남성실업의 증가율 만큼 높고, 특히 여성실업가구주의 실업증가율은 남성의 실업증가율을

* 경기대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부교수

훨씬 상회하고 있어 여성도 실업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도 여성실업가구주의 생활실태가 남성실업가구주보다 더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실업후 생활실태가 남성보다 더 열악한 이유는 먼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임시·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이 많아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에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1998년 10월 이전까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소규모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는 전통적 가족(남편,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전제하에 여성차별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의 형태를 벗어난 여성가구주 가족은 여성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그동안 여성실업자에 대한 몇몇 조사들이 수행되었고, 여성을 특별한 계층으로 취급하여 달리 대책을 세우는 여성특수적 실업대책을 세우기도 하고 정책자체는 중립적이거나 여성들에게 더 우호적인 결과를 낳는 여성친화적 실업대책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실업에 대한 해결책은 여성가구주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실업가구주는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유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태껏 남성실업가구주 가구와 여성실업가구주 가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업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비교분석한 조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실업가구주와 남성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 활용을 비교분석하고 조사결과를 근거로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성에 따른 실업의 의미와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이론적 시각, 여성실업가구주들에 대한 기존 실태조사들의 결과를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연구설계를 통하여 실업실태와 실업대책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분야를 알아보고, 표본추출과정과 조사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IV장에서는 여성(실망)실업가구주와 남성(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와 실업대책활용에 대한 자료분석결과를 살펴본 후 마지막 V장에서 결론과 정책적 제안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II. 문헌연구

1. 성에 따른 실업의 의미

실업자란 공식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과 직업을 바꾸기 위하여 일정기간 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Blau &

Ferber, 1994: 376). 그러나 실업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ILO의 권고에 기준한 실업자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도 수입을 목적으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없으면서 즉시 취업이 가능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사람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기불순, 구직결과 대기,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람”을 공식적으로 의미한다(장성자 & 김승권, 1999: 3).

그러나 여성에게는 위와 같은 공식적 정의만을 사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자발성을 중요시하는 실업자에 대한 정의에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망실업자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노동공급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은 소득과 여가간의 선호체계와 예산제약하에서 시장노동과 여가에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혼에 따른 가정내 역할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되므로 시장노동과 가사일사이에 시간을 배분함으로써 노동공급을 결정하게 된다. 여성은 가사일을 기꺼이 포기하고 노동공급을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임금인 유보임금의 수준보다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이 높을 때야 비로소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 가사일과 자녀양육비용이 요구하는 유보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줄만한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우므로 쉽게 구직을 포기하여 실망실업자가 된다. 조순경은 통계청에서 공개하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1992년 현재 공식적인 여성실업자는 14.6만명인데 비해 비구직 취업 희망자는 165.8만명으로 실망실업자가 공식실업자의 약 11.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조순경, 1998: 51).

따라서 실업에 대한 통계를 내거나 실업자 실태조사를 할 때 여성의 경우는 실망실업자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들도 같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업자에 대한 남녀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망실업자와 실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다 실업자분석에 포함할 것이다.

2. 여성실업원인에 대한 이론적 시각

여성가구주실업이 여성가구주가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여성실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구주는 일반여성의 일부계층으로써 일반여성에게 실업이 미치는 영향권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실업에 있어서 성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이를 설명하는 이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실업이란 노동시장에서의 진출과 퇴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여성실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구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남성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성과 남성은 각기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산업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낮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각에는 크게 두가지 주류가 있다.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사람들의 지위격차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와 인적자본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비판하고 나선 여권주의자들의 시각들이다(Rees, 1992: 23-33).

기능주의는 가족을 사회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단위라고 보고 가족안에서 여성이 자녀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남성이 생계유지와 같은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을 하는 것이 가족과 사회에 기능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은 사회에 기능적인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되어지고 그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적자본이론은 기능주의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이러한 역할에 대한 개념을 이어받아 그것을 여성의 인적자본이 열등한 것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남성은 직장에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느라 기술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적게 된다. 당연히 남성이 가진 인적자본이 여성이 가진 인적자본보다 많게 되어 노동시장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나은 지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기능주의와 인적자본이론이 규정하는 여성의 역할과 기능의 필연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는다. 가사일이 가전제품 등 기술의 발달로 덜 복잡해짐에 따라 한 성이 가사일에 전문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학력 및 경제활동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만큼 양성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인적자본이론의 설명력을 약화시킨다.

기능주의와 인적자본이론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이를 설명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주의의 시각이 등장하였다. Rees는 여권주의의 시각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다(Rees, 1992: 25-33). 첫째로 자유주의적 여권주의로서 이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막는 장해물을 규명함으로써 불평등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들의 목적은 기존 체제하에서 노동시장에 평등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나 고용상의 성차별을 제거하거나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의 제정이 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여성과 남성사이에 조직이나 집에서 벌어지는 권력관계나 가사분담문제는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여권주의는 남성에게 우호적인 조직이나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도전을 하지 않고 다만 여성들도 그 체제내로 들어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인

여권주의자들에게 비판받는다. 따라서 두 번째 여권주의 입장인 맑스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는 가부장제도가 자본주의 생산방식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여성을 독특한 특성을 가진 노동계층으로 만드는 것과, 여성이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낳고 길러 재생산에 기여하면서 남성 노동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자본축적에 기여하고 있음을 주시한다.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하여 남성이 경제적인 생산부문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만들고 결국 여성의 주된 역할이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로 제한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가족임금제도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의 대표적인 예로써 남성이 받는 임금이 가족전체의 구성원에게 골고루 분배되고 있으며 가족전체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여성은 따로 경제적 생산에 참여할 필요가 없이 가족보호에 전력을 다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직장여성의 낮은 임금수준을 정당화한다(Williams, 1989: 60-66). 이들은 또한 맑스의 예비노동력(reserved army of labour)개념을 사용하여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완전하고 계절적이고 간헐적으로 일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남성에 비해볼 때 여성은 덤으로 있는 예비노동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맑스주의적(또는 사회주의적) 여권주의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은 노동시장분절이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된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의 기초가 되는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에는 두가지가 존재한다고 본다. 상용정규직근로자로 구성되며, 평생경력이 보장되고, 사회보장과 좋은 작업환경이 주어지는 일차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구성되며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회보장혜택이 적고, 열악한 작업환경이 주어지는 이차노동시장(secondary sector)이다. 노동시장분절이론은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이론을 근거로 일차노동시장과 이차노동시장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서로간의 이동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며, 각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인구사회적 특성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데 여성이 중요한 변수임을 밝힌다. 고용주는 여성이라는 특성을 사용하여 여성은 직업에 대한 의식이 약하고, 따라서 어느때든지 필요할 때면 해고하기 쉽고, 평생경력을 기대하지 않으며, 덜 좋은 작업환경도 쉽게 수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주로 이차노동시장에 고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일차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남성보다 임금이나 직급 등에서 낮은 지위에 있게 된다. 맑스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여권주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도를 결합함으로써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지만, 노동시장내 여성간에 존재하는 격차는 아직도 설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세 번째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는 가부장제로 모든 여성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힘의 관계, 특히 가정내에서의 힘의 관계가 사회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를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적 여권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이 여성들의 무급가사일에 의해 이익을 얻는 계층임을 주장하지만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는 남성들이 여성들의 무급가사일로부터 이익을 얻

는 제충임을 명백히 한다. 급진주의적 여권주의는 가부장제가 모든 여성의 사회적 문제의 근본이므로 가정에서의 여성해방,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이 해결책임을 주장한다.

이 이론들 중에서 여성실업을 이해하는데는 노동시장분절이론을 이용한 맑스주의 (또는 사회주의) 여권주의시각이 유용하다. 첫째로, 실업규모면에서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게 해 준다. 경제불황이 되면 여성이 많이 모인 이차노동시장 노동자가 일차노동시장 노동자보다 우선적으로 해고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실업율이 높아왔다. 이는 여성에게 실망실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IMF이후 1997년 12월과 1998년 12월을 비교해 볼 때 남성의 실업율은 3.3%에서 8.5%로 5.2%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것은 2.8%에서 6.8%로 4.0% 포인트가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통계청, 1997, 1998). 그러나 한국의 구조조정이 실제로 시작된 1980년대부터 실업율변화를 보면 1987년에서 1998년 12월까지 남성의 실업율은 3.9%에서 8.5%로 4.6% 포인트, 여성은 1.8%에서 6.8%로 5% 포인트가 증가하여 여성의 실업율이 남성보다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87, 1998). 뿐만 아니라 IMF이후에도 취업자수 감소는 여성이 더 급격하다. IMF이후 남성의 실업율 증가가 여성보다 더 높으면서도 취업자수 감소는 여성이 더 급격한 이유는 여성실업자가 공식적 실업율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로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실업후 생활유지에 있어서 여성실업자가 남성실업자에 비해 더 어려워 질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도 낮고 과거 20년간 10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로 참여하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었으며 여성을 중심으로 임시, 일용고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박경숙, 1998: 57-58). 1998년 10월 고용보험이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기까지 여성의 고용보험가입은 저조하여 1997년 말 여성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도 전체 피보험자의 26.8%에 그쳤으며 1997년 하반기 고용보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여성이 남성의 35.9%, 구직급여일액은 여성이 남성의 63.3%에 머물렀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74-80).

셋째로, 여성중에서도 여성실업가구주가 최대희생자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차별의 합리화의 근거로 작용하는 전통적 가족에 대한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가구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가족개념에 포함되는 여성은-실업이 되었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완충역할을 하지만, 여성가구주는 실업이 되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어 그 충격이 더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정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어 여성가구주라고 해서 실업의 영향을 더 작게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IMF이후 여성실업가구주의 실업증가율이 1997년 10월부터 1998년 5월까지 8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내에 1.5%에서 4.9%로 3배 이상이 되는 등 일반여성과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실업증가율을 보였다(김종철, 1998).

따라서 실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가구주가 아닌 일반실업여성보다 여성실

업가구주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3. 여성가구주 실업실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경험하는 대량실업이란 전례없었던 것이므로 실업실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외국의 경우 Sehgal이 가족유형에 따라 실업이 빈곤발생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여가장 가정이 남가장 가정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실직한 가족원이 없는 경우 여가장 가정의 빈곤율은 17%, 남가장 가정의 빈곤율은 6.4%이었으나, 최소한 한 명이 실직한 경우 여가장 가정의 빈곤율은 44.5%로 증가한 반면, 남가장 가정은 19.2%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직한 가족원이 없을 때보다 최소한 한 명이 실직했을 때 여가장 가정의 평균소득은 38.8%가 감소한 반면, 남가장 가정의 평균소득은 33.3%가 감소하였다(Blau & Ferber, 1994: 382).

이원숙은 수원여성회에서 실시하는 여성실직가장 겨울나기 프로그램의 신청자 125명을 대상으로 1998년에 실태조사를 하였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실직가장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1%에 불과하였고, 실업수당이 있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3%였다. 그리고 IMF이후 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지닌 여성가장의 비율이 70.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여성가장이 취업시 아동보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건강문제와 정서적 불안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숙, 1998: 59-68).

좀 더 대규모의 조사로는 여성특별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1998년 6월에 서울과 부산지역 일부 626명의 실직가구와 696명의 실직자 조사를 하면서 여성실업자와 실업자가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다. 김승권은 이 조사에서 여성가구주가족의 실직자, 남성가구주가족의 여성실직자, 남성가구주가족의 남성실직자를 비교하여 여성가구주가족의 실직자가 다른 집단보다 경제적 곤란이 더 현저하고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이용도가 가장 높다고 밝혔다(김승권, 이상헌, 양혜경, 1998: 62-73, 150).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1998년 10월 전국 실직여성가장 6,949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실직여성가장의 생활, 의식, 욕구실태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50만원이하의 적은 수입으로 버티는 가정이 59%였고 평균가구소득은 32만 3천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여성가장은 3.1%, 공공근로사업참여가 23.5%, 생계보호가 27.6%, 직업훈련이 16.7%로 실업대책 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함을 밝혔다(여성신문, 1999년 1월 15일).

이러한 조사들은 실직여성가장의 생활실태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일부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아니었으므로 실업여성가장 전체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우며, 일부는 실업여성가장과 실업남성가장의 실태와 그들 가족의 실태를 일관성있게 비교한 것들이 아니어서 그들의 생활실

태와 실업대책에 대한 이용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업 여성가장의 실업후 생활실태와 실업대책에 대한 활용실태를 실업남성가장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그 결과로부터 실업여성가장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자와 실망실업자인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실업실태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과 실업전 경제활동을 비교하고, 둘째, 실업후 생활실태와 가족생활의 변화를 비교하며, 셋째, 실업대책 활용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조사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 9월에 진행한 전국실업실태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용된 조사구를 이용하여 행정구역에 따라 6대시, 기타 시의 등, 시의 읍과 면, 군의 읍, 군의 면인 5개 층의 층화표본조사구를 구성한 다음 확률비례계통추출법으로 전국 250개의 조사구를 추출한 후 그 중에서 30,899가구를 기초가구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실제 조사가 가능한 28,082가구에 대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사실시율은 94.4%였다. 이 중에서 가구내에 실업자가 1명이상 존재하는 실업가구가 2,771가구, 실업자가 없으며 IMF 이후 전직 혹은 신규 취업하여 당일 현재 취업상태로 가구원이 있는 가구(비실업가구)로 1,567가구가 발견되어 이들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이 가구들의 실업자와 실망실업자의 수를 먼저 파악하였으며, 이들 중 가구주가 실망실업자이거나 실업자로 판명된 여성가구주 283가부와 남성가구주 1,528가부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공공근로참여율을 계산할 때는 조사 당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가구주들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실업자의 의미는 조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1개월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보았고 지난 1주일간 일거리가 주어졌으면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며, 실망실업자의 의미는 조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1개월동안은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어도 과거 1년 이내 한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 본 사람을 의미한다.

IV.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활용실태 분석결과

본 장에서는 실업가구주의 실업실태 및 실업대책 활용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실망)실업가구주의 인구사회적 특성, 실업전 경제활동, 실업후 경제적 생활상태, 실업후 가족생활실태 및 변화,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 활용실태를 비교할 것이다.

1. 성별 (실망)실업자 구성 및 인구사회적, 실업전 경제활동 특성

전체 여성(실망)실업자는 1,260명으로 그 중에서 실업자가 84.4%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남성(실망)실업자는 2,312명으로 그 중에서 실업자가 93.4%를 차지한다. 따라서 실망실업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여성의 실망실업자 규모도 전체 실업자의 15.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 실업자 및 실망실업자

(단위:명, %)

실업 및 신규취업	여 성	남 성
실업자	1,063 (84.4)	2,159 (93.4)
실망실업자	197 (15.6)	153 (6.6)
합 계	1,260 (100.0)	2,312 (100.0)

Chi-Square p=0.0000

실업자와 실망실업자의 가족구성을 보면, 실업자의 경우 여성은 여성자신이 가구주와 배우자, 기타 가구원인 경우가 각각 24.2, 39.9%, 35.9%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가구주인 경우가 66.1%로 가장 많다. 실망실업자의 경우 여성은 배우자가 66.8%로 가장 많은 반면 남성은 가구주가 67.5%로 가장 많다. 그러나 여성실업가구주가 실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에 이른다는 것은 가구주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하므로 여성실업자가 가구주에 대한 실업대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¹⁾

1) 1995년 전체 15세이상 여성 인구 중에서 여성 가구주의 비율은 15.5%에 머물렀다. 통계청, 1996. 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2> 성별 실업자, 실망실업자의 가족구성

(단위:명, %)

가족구성		여성	남성
실업자	가구주	256 (24.2)	1,425 (66.1)
	배우자	423 (39.9)	13 (0.6)
	기타	380 (35.9)	717 (33.3)
실실망업자	가구주	27 (13.8)	103 (67.5)
	배우자	132 (66.8)	1 (0.9)
	기타	38 (19.4)	48 (31.6)

실업자, 실망실업자 모두 Chi-Square p=0.0000

성별 (실망)실업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양성 다 30-50세 사이가 주류를 이루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40대가 약 5%씩 더 많다. 교육수준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고, 여성의 경우 기혼율이 남성보다 64%나 낮은 반면 이혼과 사별율이 상당히 높다. 자녀의 연령분포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0-6세나 7-13세의 비율은 남성가구주보다 훨씬 적은 반면, 14-19세의 자녀와 20세 이상의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나 아동의 문제보다는 청소년의 문제가 더 심각할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표 3>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인구사회적 특성

(단위:명, %)

변수	항목	여성	남성	Chi-Square
연령	20세 미만	3 (1.2)	0 (0.0)	0.0000
	20-30세 미만	37 (13.5)	124 (8.2)	
	30-40세 미만	57 (20.6)	398 (26.2)	
	40-50세 미만	95 (34.1)	454 (29.9)	
	50-60세 미만	70 (25.1)	389 (25.6)	
	60세 이상	16 (5.6)	153 (10.1)	
교육수준	미취학, 무학	19 (6.7)	35 (2.4)	0.0000
	초등학교	89 (32.0)	236 (15.6)	
	중학교	53 (18.9)	271 (17.9)	
	고등학교	83 (29.8)	665 (44.0)	
	전문대	15 (5.3)	62 (4.1)	
	대학	20 (7.3)	226 (15.0)	
	대학원	0 (0.0)	16 (1.0)	
본인연령	20세 미만	3 (1.2)	0 (0.0)	0.0000
	20-30세 미만	37 (13.5)	124 (8.2)	
	30-40세 미만	57 (20.6)	398 (26.2)	
	40-50세 미만	95 (34.1)	454 (29.9)	
	50-60세 미만	70 (25.1)	389 (25.6)	
	60세 이상	16 (5.6)	153 (10.1)	

변수	항 목	여성	남성	Chi-Square
결혼 상태	미혼	57 (20.8)	161 (10.6)	0.0000
	기혼	59 (21.4)	1,293 (85.3)	
	별거	19 (7.0)	11 (0.7)	
	이혼	48 (17.3)	36 (2.4)	
	사별	92 (33.4)	15 (1.0)	
자녀 연령	0- 6세	3 (1.5)	161 (11.7)	0.0000
	7-13세	11 (5.4)	206 (14.9)	
	14-19세	77 (37.7)	463 (33.6)	
	20세이상	113 (55.4)	548 (39.8)	

(실망)실업가구주의 평균가구원 수는 여성가구주의 가구가 2.45명, 남성가구주의 가구가 3.58명으로 여성가구주의 가구원이 더 적다.

<표 4>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평균가구원 수

(단위:명)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283	1,528	2.45(1.45)	3.58(1.50)	11.8	0.000

(실망)실업가구주의 성별 최근 직장의 직업을 보면, 여성은 교육, 보건, 사회복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였던 비율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숙박.음식업으로 33.5%가 된다. 그러나 남성은 건설업이 34.4%로 가장 많고 광공업.제조업이 24.3%로 그 다음으로 많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건설업과 광공업.제조업에서의 재고용창출이 중요한 것에 비해 여성의 경우 숙박.음식업과 각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재고용창출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직장의 직업이나 직장규모, 근무형태, 근무시간형태를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더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5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한 비율이 월등히 높고, 건설직을 제외한 임시.일용직 비율이 남성의 2배 정도로 높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남성의 3배가 되며, 시간제로 일한 비율이 더 높다. 이러한 상황은 실업후 여성(실망)실업가구주가 남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표 5>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최근 직장의 직업

(단위:명, %)

변수	항 목	여성	남성	Chi-Square
최근 종사 산업	농.수렵.임.어업	3 (1.2)	23 (1.6)	0.0000
	광공업.제조업	33 (12.6)	356 (24.3)	
	전기.가수.수도	0 (0.0)	45 (3.1)	
	건설업	15 (5.6)	504 (34.4)	
	도소매.판매.수리업	25 (9.7)	111 (7.6)	
	숙박.음식업	88 (33.5)	36 (2.5)	
	운수.창고.통신업	1 (0.2)	118 (8.0)	
	금융.보험업	4 (1.4)	37 (2.5)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교육,보건등사회서비스	2 (0.9) 91 (34.9)	30 (2.0) 205 (14.0)	
최근 종사 직업	입법공무원	4 (1.5)	100 (6.8)	0.0000
	(준)전문가 및 기술자	17 (6.6)	288 (19.6)	
	사무직	26 (10.1)	129 (8.8)	
	서비스 및 판매직	98 (37.5)	192 (13.0)	
	농업 및 어업직	2 (0.6)	12 (0.8)	
	기능직,기계조작,조립	14 (5.5)	403 (27.5)	
	단순노무직	100 (38.2)	344 (23.4)	
	무응답	7 (3.1)	71 (5.3)	
최근 직장 규모	1 - 4	129 (49.5)	328 (22.4)	0.0000
	5 - 9	43 (16.5)	263 (17.9)	
	10 - 99	60 (23.1)	536 (36.6)	
	100 - 299	11 (4.1)	122 (8.3)	
	300인 이상	10 (4.0)	150 (10.2)	
	군인/공무원/교원	0 (0.0)	10 (0.7)	
	모르겠다	7 (2.8)	56 (3.8)	
최근 직장 근무 형태	정규직	140 (53.5)	786 (53.5)	0.0000
	임시직	40 (15.3)	104 (7.1)	
	일용직(건설제외)	39 (14.9)	83 (5.7)	
	건설일용직	10 (3.7)	285 (19.4)	
	고용주	8 (2.9)	110 (7.5)	
	자영업자(종업원없음)	24 (9.0)	98 (6.7)	
	무급가족종사자	2 (0.6)	2 (0.2)	
근무 시간	전일제	184 (82.0)	1,092 (88.2)	0.0103
	시간제	40 (18.0)	145 (11.8)	

2. 성별 (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후 경제적 생활상태

(실망)실업가구주 성별 실업후 경제적 생활상태는 모든 변수들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함을 보여준다. 우선 주택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전세와 월세의 비율이 높으며, 실업후 생계유지방법으로 가구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수당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비율이 훨씬 낮고 대신 생활보호나 정부보조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미취업시생계유지가능기간도 더 짧고,

빚을 제외한 총 재산도 1,000만원 미만인 비율이 남성의 2배나 되기 때문이다 <표 6>.

(실망)실업가구주의 한달간 소득액, 지출액, 이전소득을 비교해 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 후 생활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총소득의 경우 여성은 323,000원으로 남성의 543,000원보다 약 220,000원 정도가 적으며 그 차이는 주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에서 기인하고 있다. 총지출의 경우 여성은 735,000원으로 남성의 752,000원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것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출액 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부채상환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부모, 형제, 친인척, 이웃으로부터의 이전소득액이 실업 전에는 유의미한 차이나 가지 않았으나 실업 후에는 여성의 이전소득액이 남성보다 적다 <표 7>.

<표 6>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실업 후 경제적 생활상태

(단위:명, %)

변수	항목	여성	남성	Chi-Square
주택 유형	자가 및 주택소유	65 (23.3)	743 (49.2)	0.0000
	전세	88 (31.4)	401 (26.6)	
	월세	115 (41.0)	299 (19.8)	
	기타	12 (4.3)	66 (4.4)	
실업 후 생계 유지 방법	가구원의 근로소득	80 (28.6)	621 (41.1)	복수 응답
	퇴직금, 퇴직수당	19 (6.9)	216 (14.3)	
	친척의 도움	47 (16.7)	211 (14.0)	
	저축	134 (48.2)	604 (40.0)	
	이자, 집세등 재산소득	6 (2.1)	60 (4.0)	
	재산을 팔거나 줄여서	10 (3.7)	41 (2.7)	
	빚을 얻음	54 (19.3)	334 (22.1)	
	종교단체, 사회기관도움	7 (2.6)	18 (1.2)	
	이웃의 도움	4 (1.6)	24 (1.6)	
	실업급여	4 (1.6)	68 (4.5)	
	공공근로사업	7 (2.4)	31 (2.1)	
	정부의 대부사업	1 (0.4)	19 (1.3)	
	생활보호 정부보조금	17 (6.1)	16 (1.1)	
	직업훈련수당	6 (2.2)	15 (1.0)	
	농산물재배, 판매	2 (0.7)	26 (1.7)	
기타	13 (4.7)	56 (3.7)		
미취업 시 생계 유지 가능 기간	앞으로 1개월 미만	62 (24.3)	239 (17.0)	0.0008
	1-3개월 미만	72 (28.1)	337 (23.9)	
	3-6개월 미만	41 (16.1)	211 (15.0)	
	6개월-1년 미만	9 (3.6)	154 (10.9)	
	1-2년 미만	14 (5.4)	100 (7.1)	
	2년이상	14 (5.5)	70 (4.9)	
	잘모르겠음	43 (17.0)	300 (21.3)	
빚을 제외한 총재산	1,000만원 미만	178 (62.9)	516 (33.8)	0.0000
	1-3,000만원 미만	48 (17.0)	284 (18.6)	
	3-5,000만원 미만	28 (10.0)	252 (16.5)	
	5-7,500만원 미만	5 (1.7)	148 (9.7)	
	7,500만원-1억원 미	6 (2.1)	97 (6.4)	
	1억-1억5천만원 미만	4 (1.5)	87 (5.7)	
	1억5천-2억원 미만	6 (2.0)	40 (2.6)	
	2억-3억원 미만	8 (2.8)	105 (6.9)	

<표 7>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구의 한달간 지출, 소득, 이전소득

(단위: 만원)

분류	변 수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한달 간 소득	근로소득	249	1,359	23.9(41.9)	36.3(51.7)	4.1	0.000
	자산소득	249	1,360	.8(5.9)	3.4(21.4)	3.8	0.000
	사회보험급여	249	1,360	1.3(10.1)	1.9(12.9)	0.6	0.530
	민간연금급여	249	1,360	0.0(0.0)	0.6(14.0)	0.7	0.474
	기타소득	249	1,359	6.7(19.9)	8.2(28.1)	0.8	0.429
	총소득	249	1,378	32.3(43.4)	54.4(79.4)	6.4	0.000
한달 간 지출	식품비	272	1,393	17.5(127)	26.2(176)	9.7	0.000
	주거비	272	1,390	6.4(93)	5.6(99)	-1.1	0.258
	사교육비	272	1,390	2.0(72)	4.5(110)	4.7	0.000
	육아비용	272	1,390	.5(28)	1.4(47)	4.6	0.000
	세금과공과금	271	1,393	6.5(55)	8.8(82)	5.8	0.000
	부채상환	272	1,390	23.6(2486)	9.3(523)	-0.9	0.347
	내구재	272	1,389	.8(55)	1.8(66)	2.7	0.008
	의료보험료	271	1,390	1.1(13)	1.8(16)	8.7	0.000
	치료비	272	1,390	4.2(143)	4.9(218)	0.5	0.590
	기타	271	1,391	6.9(131)	10.0(260)	3.0	0.003
총지출액	275	1,430	73.5(2635)	75.2(726)	0.1	0.912	
이전 소득	실업전	16	42	28.1(18.1)	24.5(22.8)	-0.6	0.567
	실업후	49	214	23.2(16.8)	33.6(28.1)	3.4	0.001

(실망)실업가구주의 추정빈곤율은 여성이 60.2%, 남성이 42.3%로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다.

<표 8>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구의 추정빈곤율

(단위:명, %)

	여성	남성
총소득 1인당 23만원이하이고 재산 3,000만원 미만	165 (60.2)	622 (42.3)
총소득 1인당 24만원이상이거나 또는 재산 3,000만원 이상	109 (39.8)	848 (57.7)
합 계	273 (100.0)	1,471 (100.0)

Chi-Square p=0.0000

참고: 재산은 빚을 제외한 총재산이며 총소득과 재산은 본인들이 면접조사시 보고한 것이라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빈곤율은 추정치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3. 성별 (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후 가족생활실태 및 변화

(실망)실업가구주 실업후 가족생활실태를 비교해 보면 의료비부담을 제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 자녀의 학업문제, 자녀의 비행(유의도 0.1수준)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실망)실업가구주가 남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부부갈등에 있어서는 부부가 있는 경우만 분석했을 때 여성(실망)실업가구주가 남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덜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여성실업이 남성실업보다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납되기 때문이거나, 부부이면서 여성이 가구주로서 일을 했던 경우는 남성이 일을 하지 못할만한, 이미 부부간에 이해된 사정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9>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족생활의 실태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생계유지어려움	277	1,503	4.07(1.04)	3.94(1.02)	-2.0	0.050
의료비 부담 큼	264	1,459	3.35(1.26)	3.27(1.23)	-1.1	0.288
부부갈등	36	1,245	2.06(1.07)	2.52(1.21)	2.5	0.017
자녀의 학업문제	107	737	2.61(1.31)	2.22(1.13)	-2.9	0.004
자녀의 비행	108	711	1.83(0.99)	1.75(0.96)	-0.8	0.100

1-5점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심각함.

또 다른 측면에서 (실망)실업가구주의 가족생활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자녀의 사교육을 중단한 비율이 남성(실망)실업가구주가 여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더 높다. 그러나 아이나 부모를 타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비율은 여성(실망)실업가구주가 남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유의도 0.1이하의 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족생활의 변화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아이를 위탁함	204	1,264	1.94(0.30)	1.97(0.18)	1.6	0.107
부모를 위탁함	187	1,195	1.93(0.31)	1.97(0.19)	1.8	0.080
자녀점심결식	195	1,212	1.95(0.26)	1.95(0.24)	0.4	0.727
자녀진학포기	198	1,203	1.93(0.26)	1.93(0.28)	0.3	0.768
군입대.휴학	192	1,176	1.93(0.29)	1.92(0.31)	-0.4	0.674
자녀사교육중단	200	1,226	1.79(0.44)	1.70(0.48)	-2.7	0.008

1(그렇다) 2(아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가 있는 비율이 높음.

(실망)실업가구주 가족의 결식회수 및 도시락 못싸주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 양성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11>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족의 결식회수 및 도시락 못싸주는 횟수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가족 결식회수	274	1,476	0.14(0.85)	0.11(0.97)	-0.4	0.723
도시락결식회수	178	1,054	0.10(0.61)	0.09(0.64)	-0.1	0.886

가족 및 도시락결식회수는 일주일 평균 결식회수에 대한 여성과 남성평균을 계산한 것임.

(실망)실업가구주 성별 가구원들 전체의 질환자수와 질환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질환자수는 양성 가구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전체 가구원 중 질환자의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8% 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12>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질환자 수 및 가구원 중 질환자의 비율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질환자 수	283	1,528	0.47(0.69)	0.46(0.70)	-0.2	0.864
질환자 비율	283	1,528	0.23(0.37)	0.15(0.25)	-3.8	0.000

(실망)실업가구주의 의료보장형태를 비교해 보면 양성 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70%이상인 되는 가운데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보다 직장이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조금 더 낮고 의료보호1,2종에 가입한 비율과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다.

<표 13> 성별 (실망)실업가구주의 의료보장형태

(단위:명, %)

	여성	남성
직장의료보험	24 (8.5)	252 (16.6)
지역의료보험	203 (72.9)	1,134 (74.9)
공무원.교직원.군	2 (0.7)	13 (0.9)
의료보호1종	10 (3.6)	14 (0.9)
의료보호2종	19 (6.9)	19 (1.3)
어디에도 안가입	21 (7.5)	82 (5.4)
합 계	278 (100.0)	1,514 (100.0)

Chi-Square p=0.0000

비용 때문에 치료를 못받거나 치료를 중단한 가구원이 전체 가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이 0.07인 반면 남성은 0.04로 실업으로 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가구원 비율이 여성(실망)실업가구주 가구가 더 높다.

<표 14>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족의 비용때문에 미치료/치료중단한 가구원 비율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283	1,528	0.07(0.23)	0.04(0.14)	-2.4	0.016

4. (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에 대한 대처방안 및 실업대책 활용

(실망)실업가구주 가구원의 실업에 대한 대처형태를 비교해 보면 다른 가구원이 취업하거나 부업을 시작하거나 전직하거나 더 일하여 이미 실직에 대처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2배 정도 되나, 가구원이 구직활동을 시작한 것이 남성보다 여성이 약 10% 더 많다.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가구원이 더 취업에 적극적인데 그 이면에는 여성배우자가 취업을 하여 경제적 곤란을 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가구원의 대처형태 (단위:명, %)

	여성	남성
다른 가구원이 취업	9 (7.1)	136 (15.1)
취업가구원이 부업시작	9 (6.9)	75 (8.3)
취업가구원이 전직	0 (0.0)	11 (1.2)
취업가구원이 더 일함	10 (7.8)	109 (12.1)
가구원이 구직활동시작	114 (85.5)	690 (76.9)
합 계		

복수응답처리

(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급여신청 및 실업자대부사업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양성 다 활용도가 낮다. 그러한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남성은 13%, 여성은 7.5%이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자대부사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도, 신청율, 수혜율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성별 (실망)실업가구주의 실업급여신청 및 실업자대부사업 인지

(단위:명, %)

변수	항 목	여성	남성	Chi-square
실업급여 신청 여부	현재 받고 있음	12 (6.0)	96 (7.7)	0.0866
	받은 적 있음	3 (1.5)	65 (5.3)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11 (5.5)	79 (6.4)	
	신청하지 않았음	67 (87.0)	1,004 (80.6)	
대부사업 인지	예	75 (26.7)	544 (36.0)	0.0027
	아니오	205 (73.3)	969 (64.0)	
대부사업 신청	예	3 (3.9)	66 (12.1)	0.0360
	아니오	72 (96.1)	479 (87.9)	
대부사업 수혜	예	0 (0.0)	44 (66.9)	0.0195
	아니오	3 (100.0)	22 (33.1)	
대부사업 문제점	대출금액 너무 적음	1 (1.8)	24 (4.6)	0.1438
	자격조건 너무 까다롭	36 (51.2)	245 (46.2)	
	신청절차가 까다로움	10 (14.8)	86 (16.2)	
	이자율이 높음	2 (3.3)	50 (9.4)	
	상환기간이 짧음	3 (4.2)	21 (3.9)	
	기타	1 (2.0)	33 (6.2)	
	모르겠다	16 (22.6)	72 (13.6)	

(실망)실업가구주의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인지도에서는 양성 모두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0%미만이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는 자의 신청 여부를 비교해 보면 여성의 신청비율이 37.6%로서 남성 11.4%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생활보호사업에 신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종류와 신청한 자 중에서 혜택받은 비율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 (실망)실업 가구주 중 생활보호수급자의 비율은 여성이 5%, 남성이 1%정도이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보호 지원을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원명목은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15% 포인트 정도 높으며 여성은 의료비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남성의 약 2배가 된다.

<표 17>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생활보호사업 신청여부 (단위:명, %)

변수	항 목	여성	남성	Chi-square
인지 여부	예	74 (26.5)	439 (29.1)	0.3765
	아니오	206 (73.5)	1,070 (70.9)	
신청 여부	예	28 (37.6)	49 (11.4)	0.0000
	아니오	46 (62.4)	385 (88.6)	
신청 종류	일반	22 (78.9)	31 (58.0)	0.0612
	한시적	6 (21.1)	22 (42.0)	
수혜 여부	예	14 (49.7)	17 (31.9)	0.1170
	아니오	14 (50.3)	36 (68.1)	
지원* 명목	생활비	9 (64.9)	13 (77.3)	복수응답
	의료비	9 (64.5)	5 (32.1)	
	교육비	4 (26.8)	5 (27.2)	
	기타	1 (7.1)	0 (0.0)	

*지원명목은 복수응답처리되었으므로 100%가 넘고, ()안의 비율은 지원받은 사람중에 각 항목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자의 비율을 의미함.

(실망)실업가구주 가구의 가구원 1인당 생활보호 월수급액은 남성(실망)실업가구주가 208,000원으로 여성(실망)실업가구주 71,000원보다 월 137,000원이 더 많은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구구의 1인당 생활보호 월수급액

(단위: 천원)

여성수	남성수	여성평균(SD)	남성평균(SD)	T-value	유의도
14	24	71 (72)	208 (235)	2.67	0.012

(실망)실업가구주의 구직등록여부를 비교해 보면, 양성 다 2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등록이유나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서는 차이가 난다. 여성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와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 구직등록을 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취업 정보를 얻거나 구직 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한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다. 구직등록을 안

한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등록절차를 모르거나 어떻게(어디서)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해야하는 것인지 필요성을 모르는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구직등록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구직등록

(단위:명, %)

변수	항 목	여성	남성	Chi-square
구직 등록	예 아니오	71 (23.1) 238 (76.9)	413 (25.8) 1,188 (74.1)	0.4809
등록 이유	취업정보,구직 직업훈련받고자 실업급여받고자 자금대부받고자 공공근로참여 기타	36 (56.8) 7 (11.1) 3 (4.5) 0 (0.0) 15 (23.0) 3 (4.6)	276 (68.2) 12 (3.0) 56 (13.9) 7 (1.6) 48 (11.8) 6 (1.4)	0.0003
등록 안한 이유	자영업준비 새 일자리마련 별 도움안됨 등록절차모름 부끄러워서 방법모름 자격안됨 필요성 몰랐음 기타	2 (2.0) 1 (1.5) 16 (16.5) 15 (15.9) 1 (0.6) 22 (23.6) 4 (4.7) 24 (25.6) 9 (9.6)	47 (8.9) 1 (0.2) 169 (31.8) 62 (11.7) 8 (1.5) 92 (17.4) 29 (5.5) 64 (12.1) 59 (11.0)	0.0004

(실망)실업가구주의 성별 공공근로사업참여여부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9.7%로 남성 6.8%보다 약 3% 포인트 많다. 그러나 여성가구주인데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비율 역시 남성보다 1.3% 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도 0.0567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표 20> (실망)실업가구주 성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단위:명, %)

	여성	남성
참여함	30 (9.7)	109 (6.8)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함	19 (6.1)	77 (4.8)
일할 수 있었으나 포기	0 (0.0)	17 (1.1)
참여안함	261 (84.2)	1,403 (87.3)
합 계	310 (100.0)	1,606 (100.0)

Chi-Square p=0.0567

참고: 공공근로사업참여 여부시 합계는 실업자와 실망실업자에다가 조사 당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실업자와 실망실업자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합한 것임.

(실망)실업가구주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비교해 보면, 여성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일이 어렵고 힘들어, 또는 육아·가사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

<표 21> 성별 (실망)실업가구주 공공근로사업 신청안한 이유

(단위:명, %)

	여성	남성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18 (22.2)	115 (15.7)
신청할 자격이 없어서	9 (11.4)	97 (13.2)
신청해도 안될 것 같아	12 (15.2)	125 (17.0)
일대비해 수입이 적어	9 (11.2)	86 (11.8)
일이 어렵고 힘들어	3 (4.1)	11 (1.5)
일이 계속있지 않아서	6 (7.2)	53 (7.2)
체면 때문에	1 (1.3)	46 (6.2)
일할 생각 없어서	1 (1.6)	13 (1.7)
육아·가사 등의 문제로	2 (3.0)	3 (0.5)
기타	9 (10.9)	131 (17.9)
비해당	10 (12.1)	54 (7.4)
합 계	80 (100.0)	734 (100.0)

Chi-Square p=0.0424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 실업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특히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장들이 실업으로부터 경험하는 생활고는 어느 계층보다도 더 심각하다. 따라서 일반여성에 대한 실업대책은 남성에게 대한 것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실업여성가장에 대한 대책은 일반여성에게 대한 대책과도 차별화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노동시장분절이론을 이용한 맑스주의(또는 사회주의) 여권주의시각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역시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교육수준이 현저히 낮고, 미혼·이혼·사별 등 혼자사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숙박·음식업, 교육 및 보건 등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였거나 서비스직·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였던 비율이 높고, 5인 미만의 직장에서 종사하였거나 임시직, 시간제로 근무한 비율이 높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불안정하고 낮았던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후에도 열악한 생활수준에 놓여 있다.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가구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금·퇴직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비율도 낮으며, 미취업시 생활유지 가능기간도 짧으며, 지출액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총소득액도 적고, 실업후 이전소득도 적고 예상빈곤율이 남성의 1.5배 정도 높다. 여성(실망)실업가구주 가구는 질환자비율이 남성(실망)실업가구주 가구에 비해 높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치료받지 않은 가구원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가구비율이 더 높아 의료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또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생계유지의 어려운 자녀의 학업문제, 자녀의 비행 등의 어려움을 더 호소하고 있으며 아이나 부모를 타 시설이나 친지에게 위탁한 비율도 높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더 열악한 생활때문에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남성(실망)실업가구주에 비해 실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더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호 가구원 1인당 월수급액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주로 의료보호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시적 생활보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신청하고 있고 실업자대부사업 인지도와 수혜율이 낮으며, 구직등록절차나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 등, 실업대책의에서 활용면에서 남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면도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도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서 여성의 인지도의 부족이 드러났다. 한편 직업훈련을 위해 구직등록을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에서 여성(실망)실업가구주는 낮은 교육수준과 미흡한 직업 경험 및 부족한 기술 등으로 생활안정대책에 더 기댈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의지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여성실업감소 및 여성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기존 대책들은 크게 노동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생활안정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업대책으로는 각종 실업대책 중 여성수혜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것, 여러 계층별 다각적인 고용촉진시책을 전개하기 위해 주부 취업적합 직종을 발굴하여 취업알선·훈련기관에 보급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 등 주부적합직종참여를 확대하고, 전국 27개 인력은행에 Park-bank를 운영하는 것, 여성채용인센티브제 실시 촉구, '일하는 여성의 집'을 확대하는 것, 공공훈련기관의 여성훈련생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업전문학교에 주부특별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육아휴직장려금을 상향조정하며, 여성재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것 등이 있다(엄현택, 1998: 103-110).

여성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대책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를 확대하는 것, 저소득 실직자의 보육료를 50% 감면하는 것, 가정상담사업을 강화하는 것, 실직자 의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생활안정 대부사업 등이 있다(신현수, 1998: 97-100).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 실업여성가장을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는 재취업이 용이한 분야에서 1999년 6,400명에게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여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과 1천명에게 5,000만원 한도로 점포를 지원하는 자영업지원사업, 그리고 여성가장 채용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 - 1/3을 6개월동안 지급하는 여성가장채용장려금제도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실업여성가장에게 우선순위를 주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실업여성가구의 생활안정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원규모가 아직도 미흡하고 홍보부족으로 많은 실업여성가구주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근거로 (실망)실업여성가장을 위한 대책들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생활안정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공공근로나 생활보호 들 중의 하나를 통하여 공공부조가 정하는 재산과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가진 (실망)실업여성가장은 누구나 생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호와 공공근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실망)실업가구의 예상빈곤율인 60%와 현재 생활보호수급자의 비율인 5%와 공공근로참여비율인 약 10%를 합한 15%의 생활안정대책 참여율 사이의 45% 정도의 큰 격차가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망)실업여성가장 가정은 질환자가 많으나 의료보장이 안되는 가구가 7.5%나 되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라도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보호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둘째, (실망)실업여성가장은 나이가 많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경험이나 기술이 부족하나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그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의 집"처럼 여성전용 직업종목을 개발하여 훈련시키는 직업훈련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지원하는 저소득 (실망)실업여성가장에 대한 생계비보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영업지원사업 같은 경우 대부사업에 앞서 그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창업에 대한 훈련 및 정

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망)실업여성가장이 가진 가족문제로는 아동의 보육문제보다는 청소년문제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육비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는 모자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모자가정에 대한 대책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실망)실업여성가장은 특별히 실업대책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므로 그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들은 신문을 읽지도 않고, 다른 정보지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999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Data Base구축사업이 들어있고 대대적인 조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적 가구조사를 통해 (실망)실업여성가장을 파악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안내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권, 이상헌, 양해경. 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여성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철. "여성 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계획". <http://www.molab.go.kr/molw/owa/molab382?ymd1=...:10&opcode=96-08-23>.
- 박경숙. 199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방안. 제 6회 아시아여성 우호교류 심포지움자료. 경기도.
- 신현수. 1998. "실직가정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방향".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 실업대책 세미나. 여성특별위원회.
- 엄현택. 1998. "여성실업대책". 여성실직자 가정의 복지욕구와 '99실업대책 세미나. 여성특별위원회.
- "여연, 저소득 실직여성가장 실태조사". 여성신문. 1999년 1월 15일. p. 4.
- 이원숙. 1998. "실직여성가장의 삶과 공공근로사업".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
- 장성자, 김승권. 1999. "실직가정 여성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IMF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세미나.
- 조순경. 1998. "공공근로사업 방향과 여성실업". 여성실업극복을 위한 경기여성포럼.
- 통계청. 1987, 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 통계청. 1997, 12월, 1998, 1-12월. 경제활동인구월보.
- 한국노동연구원. 1998. 고용보험동향. 제3권. 제1호. 봄.
- Blau, Francine D., and Marianne A. Ferber. 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 학지사.
- Rees, Teresa. 1992. *Women and the Labour Market*. New York: Routledge.
- Williams, Fiona. 1989. *Social Policy: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Abstract

Comparison of Living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the Unemployment Programs Between the Male and Female Heads of Family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Park, Kyung Sook

The problems of unemployment have been recognized as male problems even though the female unemployment problems are as significant as those of men since IMF. The women who have experienced insecure employment and lower wage than men in the labor market are having more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after being unemployed. Especially economic problems of the unemployed female headed families are anticipated to be tremendous because the female heads do not have spouses who can act as a buffer seeking or beginning to work to reduce economic hardship.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living conditions and utilization of the unemployment programs between male and female heads of the family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It will examine the functionalism, human capital theory, and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cause of female unemployment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f their living situations after being unemployed. Then, it will compare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ir economic activities before being unemployed, their living conditions and changes in family life after being unemployed, their efforts to overcome unemploy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government unemployment programs. It used the national data of National Unemployment Survey of Korean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conducted in 1998 and analyzed 283 female and 1,528 male family heads who are unemployed and discouraged workers.

It reveals that the female family heads experienced lower economic status in the labor market before being unemployed, are having more serious economic hardship because of it, utilize more of the government programs such as public work and public assistance than the male family heads but less of the public loans for the unemployed. It recommends

expansion of public work and public assistance, more vigorous advertisement of various unemployment programs, and active training of job creation technique for female family heads.

Tel: 0331-249-9329

Fax: 02-578-2791

E-mail: kspark@kyonggi.kuic.ac.kr